

한중 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 전략

금지아
(북경대)

1. 서론

번역은 출발어 텍스트(source text)를 도착어 텍스트(target text)로 옮겨 놓는 작업이다. 번역과 문화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문화소의 개념이 번역학에 도입되었다. 문화소란 어느 특정의 상황에서 그것과 관련된 이해 또는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유발시키는 모든 사회 문화적 요소를 일컫는데, 도착어 문화권에는 알려져 있지 않거나 다르게 정의되는 비언어적 현상이나 제도 등도 포함된다.¹⁾ 따라서 문화소의 개념을 번역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번역은 출발어로부터 문화적 요소를 정확히 파악한 이후 그 내용을 도착어로 재생산하는 적극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번역자가 한중 두 문화권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번역은 오역이 되고 만다. 또한 한국어에는 한자에서 온 어휘들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만,²⁾ 양국의 사용 습관 차이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오

1) 김효중 (2004: 72).

히려 정확한 이해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문화소 번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이에 따라 문화소 번역 전략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스톨제(R. Stolze)는 출발어 문화권의 문화소가 도착어 문화권에 부재한 경우를 ‘실제적 부등성’으로 정의하고 있다.³⁾ 문화소의 부등성이 있을 경우 번역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적절한 보상 메커니즘으로서의 번역 전략을 사용한다면 문화소의 부등성을 보상할 수 있을 것이며, 본고의 목적 또한 문화소의 부등성을 보상하는데 유용한 번역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화소의 부등성 이론을 살펴보고 한중 번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번역 전략을 실제 번역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문화소 번역에 관한 이론

2.1 문화소의 개념과 문화소 부등성의 유형

‘문화소(culture elements)’는 언어학의 음소와 비슷한 개념으로 문화의 근원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스코포스 이론의 페르메어(Vermeer)는 언어를 문화의 일부로 보고 문화소의 개념을 “담화망에서 개념화되지는 않았지만 목적어 문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문화적 산물”로 정의했다.⁴⁾ 김효중은 문화소의 개념을 “특정의 상황에서 특정의 이해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유발시키는 모든 사회 문화적 요소”로 정의하고,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출발어 문화권에 나타나지만 도착어 문화권에는 알려져 있지 않거나 다르게 정의된 비언어적 현상, 제도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았다.⁵⁾ 이근희는 문화소를 ‘문화 관련(culture-bound) 어휘’라는 말로 풀었는데, 출발어를 사용하는 사회 공동체의 역

2) 한국어 어휘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적으로 50%에서 70%사이로 통계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한자어는 수록 어휘 전체의 58.5%에 달하고 있다 ; 이희승이 편찬한 『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한자어는 수록 어휘 전체의 69.32%에 달하고 있다.

3) 김효중 (2004: 39).

4) 권인경 (2013: 39 재인용).

5) 김효중 (2004: 72).

사, 사회, 경제, 정치, 언어관습 등을 둘러싼 고유하거나 특정 문화에서 비롯되는 어휘를 문화 관련 어휘라고 했다.⁶⁾

에익셀라(Aixela)는 문화소적인 요소를 지닌 어휘를 ‘문화적 특정 항목(culture specific items)’이라고 명명하고, 이 항목은 출발어 텍스트에서의 기능과 함축된 의미가 도착어 텍스트로 번역할 때 번역상의 문제를 지닌 것이라고 하면서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 거리, 역사적 인물, 예술 작품 등을 예로 들고 있다.⁷⁾ 남원준(Nam, Won Jun)은 이 어휘들이 도착어 문화권에 동등하거나 유사한 어휘가 없기 때문에 번역할 때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소적인 요소를 지닌 어휘를 번역할 때 번역자는 문화 중개자 역할을 하여 출발어 문화와 도착어 문화 사이의 문화적 틈새를 매워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문화소적인 요소를 지닌 어휘를 에익셀라의 의견을 수용하여 ‘문화적 특정 항목’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세분하여 사람, 건물, 조직체 등의 이름인 고유명사, 특정한 문화와 관련된 항목,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과 관련된 항목, 관용어구, 무게와 척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⁸⁾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 용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⁹⁾, 가리키는 대상이나 개념은 거의 유사하므로 본고에서는 김효중의 견해를 따라 이를 ‘문화소’로 명명하기로 한다.

출발어 문화권에서 생성된 문화적 요소의 축적물이 도착어 문화권에도 공통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문화소는 서로 같지 않은 부등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스톨제(R. Stolze)는 이처럼 출발어 문화권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어서 누구나 다 알지만 도착어 문화권에서는 생소한 요소, 출발어 문화권에서는 어떤 특정한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착어 문화권에서는 전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거나, 반대로 출발어 문화권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되지만 도착어 문화권에서는 특정한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텍스트적 요소를 ‘문화소’라고 정의한다. 그에게서 텍스트는 문화의 산물이므로 문화는 텍

6) 이근희 (2005: 254).

7) Aixela, Javier Franco (1996)

8) Nam, Won Jun (2008: 152-154).

9) 문화소나 문화 관련 어휘, 문화 특정 항목 외에 문화관련 요소(cultural-bound elements), 문화적 요소(cultural elements)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학자들마다 文化缺省(culture default), 文化專有項(cultural specific items), 文化因素(cultural elements)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기정 2008: 277).

스트에 표현되어 있고 텍스트는 문화의 구체적인 사실인 것이다. 문제는 텍스트에 표현되거나 함축된 문화요인을 인지해야 하는 것인데, 그는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화소의 부등성을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유형화하고 있다.¹⁰⁾

1) 실제적 부등성(reale Inkongruenz): 역어 문화권에 존재하지 않는 원어 문화권의 문화소

2) 형식적 부등성(formale Inkongruenz) : 역어 문화권에 문화소로서 존재하지만 다른 언어적 형태를 지닌 원어 문화권의 문화소

3) 의미적 부등성(semantische Inkongruenz): 역어에서 원어의 뜻으로부터 이탈하거나 원하지 않는 연상 작용을 일으키는 어휘의 문화 특유의 함축성

스톨제의 분류를 살펴보면 번역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은 실제적 부등성을 보일 경우이다. 그는 실제적 부등성은 텍스트 전체를 출발어 텍스트에 상응하는 유사한 텍스트로 번역함으로써 보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¹¹⁾

2.2 실제적 부등성을 해결하기 위한 번역 전략

출발어(한국어) 문화권에는 있지만 도착어(중국어) 문화권에는 없는 실제적 부등성이 존재하는 문화소를 번역할 때 번역자는 어떠한 번역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 본고에서는 실제적 부등성이 존재하는, 특정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문화소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텍스트를 번역할 때 느끼는 어려움은 단순히 두 언어의 구조가 다를 때보다는 오히려 두 문화권 사이의 상이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 이때 번역자는 가급적 원문의 분위기를 충실히 전달하여 독자들에게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도착어 문화에 동화시켜 타 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줄일 것인가를 고민한다. 이와 관련하여 Venuti(베누티)는 ‘현지화(domestication)’와 ‘타지화(foreignization)’¹²⁾ 개념을 제안했다.¹³⁾ 현지화는 도착어 독자에게 낮

10) 김효중 (2004: 38); 강수정 (2010: 10); 전기정 (2008: 278-279).

11) 김효중 (2004: 39).

12) ‘domestication’과 ‘foreignization’은 번역자에 따라 ‘자국화와 타국화’, ‘자국화와 이

선 출발어의 문화적, 언어적 요소 등을 도착어 문화와 관습에 맞춘다는 것으로, 극단적인 경우 출발어 텍스트와 현저하게 다른 고유한 번역어가 생성될 수 있다. 현지화의 방법으로는 도착어 문화에 익숙한 표현으로 풀어쓰기, 상위어 (superordinate term) 사용하기,¹⁴⁾ 도착어 문화대체어 사용하기¹⁵⁾ 등이 있다. 반면 타지화는 출발어 문화의 색채를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독자가 번역문을 읽으면서 번역문임을 확연히 알 수 있도록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전략이다. 타지화의 방법으로는 출발어의 음을 그대로 차용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 Venuti(베누티)에 의하면 현지화와 타지화는 상대적이고 폭넓은 개념인데, 출발어 텍스트를 얼마나 도착어 텍스트 문화에 친근하게 동화 시키는가 혹은 이질적인 것으로 두는가 하는 구분은 번역 과정에서 항상 존재한다. 이어지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소를 번역하는 전략은 매우 다양하지만, 결국은 현지화를 선택할 것이냐 타지화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3. 실제 예를 통한 문화 차이와 번역 검토

3.1 검토 자료

실제적 부등성이 존재하는 문화소는 도착어 문화권에서의 존재여부만 판단하면 되므로 번역된 텍스트에서 어떤 번역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지 살펴보기에 용이하다. 본고의 분석대상 텍스트는 『우리문화 길라잡이-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전통문화 233가지』(국립국어연구원 2002)의 중국어 번역본(『韓國文化嚮導』

국화'로 번역하기도 하며, 중국에서는 이를 '歸化'와 '異化'라고 번역한다.

13) 강수정 (2010: 12).

14) 의미 영역이 더 좁은 단어 또는 용어와 계층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 및 용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상위어인 동물은 고양이, 말, 개 등의 하위어를 포함한다. (전기정 2008: 280).

15) 출발어 문화의 특정 상황이 도착어 문화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문화적 지시물(culture reference)을 바꾸는 것을 일컫는다. 출발어 문화 특수성을 지닌 요소가 도착어 문화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도착어의 문화대체어를 사용함으로써 표면적 의미 차원의 등가를 구하기 위해 사용한다 (김도훈 2006a: 15).

(학교재 2004)이다. (이하 『우리문화 길라잡이』의 중국어 번역본으로 칭함). 이 책은 한국의 233가지 문화소를 한국의 음식, 한국의 복식, 한국의 주생활, 한국인의 일생과 세시풍속, 한국의 민속 신앙, 한국의 멋, 한국의 상징과 특산물의 7종 유형으로 나누고 문화소(표제어)의 뜻을 풀이한 것으로, 중국인 한국 문화 입문자들이 한국의 기초적인 문화용어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번역, 출판한 것이다. 한국 문화의 핵심적이고 다양한 측면에 대한 뜻풀이는 중국어권 독자들의 이해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 부등성에 해당하는 문화소의 보상 번역은 결코 쉽지 않다. 자칫 한 용어에 대한 다양한 번역자의 표기 불일치¹⁶⁾로 인한 이해의 오류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책에 실린 233가지 문화소 중 실제적 부등성에 해당하는 것 107가지를 발췌하여, 현지화와 타지화 번역 중 번역자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출발어의 문화소는 고유어, 한자어,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된 형식으로 각각 나타난다.

3.2 실제적 부등성의 번역 전략 검토

3.2.1 현지화의 방법

① 도착어 문화에 익숙한 표현으로 풀어쓰기

이 전략은 대응 단어가 없을 경우,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로 풀어서 번역하는 것이다. 이 전략을 사용할 경우 상당량의 인지 축적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화의 차이가 클수록 지시적, 표현적 의미를 도착어에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인지적 축적물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전략이다. 명제적 의미를 제시하는 정확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출발어 텍스트를 가공하여 풀어쓰으로써 출발어 어휘의 문체론적 고려는 거의 없는 단점이 있다. 주로 순수 고유어가 여기에 해당하고, 순수 한자어, 한자어와

16) 현재 중국에서 집필된 한국 문화 교과서와 교재,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소개된 한국 문화 용어와 그 내용에 대한 번역은 통일된 규정이 없이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인 이해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고유어가 결합된 경우도 일부 있다. 이 책의 번역 사례로 볼 때 <곰국>, <깍두기>, <동치미>, <쌈>, <적>, <회>, <인절미>, <절편>, <빈대떡>, <김밥>, <떡볶이>, <미숫가루>, <대남>, <탱기>, <계>, <웃놀이>, <쥐불놀이>, <다리밟기>, <고싸움>, <숫대>, <장승>, <돌하르방>, <살풀이춤>, <김장>, <약과> 등의 번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번역예시1)

a. 숫대는 긴 장대를 세우고 그 맨 꼭대기에 새의 모형을 얹어 놓은 조형물을 이른다. 보통 마을 어귀에 세워져 있는데 그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며 마을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된다. 주로 나무로 만드는데 꼭대기에 얹는 새는 대부분 오리의 형상을 하고 있다.

b. 護村長杆是指在樹起的長杆的最頂端放置鳥類模型的造型物，通常矗立在村莊的入口，起到保護村莊的守護神作用，是村里人信仰對象。主要由木頭製成，置于頂端的鳥大部分具有水鴨的模樣。(335)¹⁷⁾

(1a)의 고유어 ‘숫대’는 한국어 문화권에는 존재하나 중국어 문화권에는 없는 문화소이다. (1b)에서는 “마을을 지킨다(保護村莊)”는 표제어 설명 내용을 의식하여 ‘마을을 수호하는 긴 장대’라고 번역했다.

번역예시2)

a. 장승은 기다란 나무나 돌에 사람의 얼굴 모습을 새겨서 놓은 조형물이다.지금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길가에 세워진 장승들이다. 이는 장승이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여정을 지켜주는 신이며 동시에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의 역할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b. 人像路標是指在長長的木頭或石頭上雕刻人的面孔模樣後矗立起來的造型物。.....現在最爲常見的是矗立在路邊的人像路標。據說這種人像路標是保護遠行者旅程平安的神,同時還發揮着指示方向的路標作用。

(333-334)

(2a)의 한자어 ‘장승(長丞)’은 ‘장생(長性 혹은 長生)’으로도 쓰이는데, 잡귀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마을 수호신으로서 숫대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된

17) 괄호 안의 숫자는 번역본의 쪽수이다(한국어판의 쪽수와 동일함).

다. (2b)에서는 단순한 경계표나 이정표의 역할을 강조하여 ‘사람 형상의 이정표(人像路標)’라고 번역했다. 마찬가지로 『韓漢大辭典』에는 ‘마을 입구 또는 사찰 입구에 세운 사람 얼굴 모양의 이정표(豎立在村口、廟門等處, 上有人面造形的)里程標’라고 설명식 번역이 되어 있다.¹⁸⁾ 더러는 한자어 표기를 그대로 취하여 長柱柱, 長柱, 長丞 등으로 직역하기도 하지만, 중국인 독자들의 용이한 이해를 위해 부연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번역예시3)

- a. 웃놀이는 작고 긴 원기둥 모양의 나무 두 개를 세로로 반씩 쪼개어 네 쪽으로 만든 옷과 말, 그리고 말판으로 노는 놀이이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즐기며 장소에도 특별한 제약이 없다.옷을 던져 깃수가 정해지면 말을 가지고 말판에 깃수에 맞게 올려놓거나 옮긴다.
- b. 擲柶是指將兩塊小而長的圓柱形木頭豎着分別劈成兩半, 做成四塊的木板條兒、以及碼和擲柶盤來玩的遊戲。無論男女老少都喜歡玩擲柶, 遊戲的場所也沒有特別的限制。.....丟柶得到分數後, 拿着碼在擲柶盤上根據分數走相應的格。(260-261)

(3a) ‘웃놀이’의 한자어는 擲柶 또는 柶戲이다. 일부 중국의 한국 문화 저서와 한중사전 등에는 이를 ‘尤茨’라고 중국어 음역을 해 놓았다. ‘尤茨’는 사전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로서, 개별 글자는 각각 ‘尤(특별히)’, ‘茨(가시나무, 초가지붕)’의 뜻을 갖고 있다. 용어의 뜻이든 발음(음역)이든 이 문화에 생소한 중국인 독자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번역이다. (3b)에서는 한자어대로 ‘척사(擲柶)’라고 번역했는데, 혹은 ‘척사유희(擲柶遊戲-밥주걱(옷)을 던지는 놀이)’라고도 한다. ‘擲柶遊戲’는 ‘擲(던지다)’라는 글자를 통해 무엇을 던져서 노는 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擲柶’라는 단어도 없고, ‘柶(밥주걱(옷))’도 현대 중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글자가 아니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옛날에 쓰던 밥주걱’이라는 해석을 찾을 수 있고, ‘擲(던지다)’와 결합하여 놀이의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 외에 전통 민속놀이 웃놀이에 숨겨져 있는 문화적 속성은 표제어 아래 풀이해 놓은 문맥의 번역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 웃놀이와 유사한 중국의 놀이 중에 ‘飛行棋(flight chess)’가 있다. 비행기가 그려져 있는 네 가지

18) 劉沛霖 (2007).

색깔의 알, 주사위, 기판이 있고,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점수에 따라 알을 움직이는 놀이이다. 도착어 문화대체어를 사용해 번역할 경우 ‘韓國傳統飛行棋遊戲’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번역예시4)

a. 살풀이춤은 한복을 입고 손에 기다란 수건을 든 채 혼자서 추는 한국 고유의 춤이다. 이때 수건도 하얀색이며 한복도 모두 하얀색으로 차려 입는다.가락에 따라 멈추었다가는 터질듯이 움직이는 춤사위는 슬픔을 환희로 승화시키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다. 기녀들은 굿 장단의 하나인 살풀이장단에 맞추어 손에 수건을 들고 가장 여성적인 모습으로 춤을 추었으며 살풀이춤이라는 이름도 이 장단의 이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b. 解恨舞是身着韓服，手中握着長長的手巾獨自起舞的韓國固有舞蹈。這裡使用的手巾為白色，韓服也是白色。.....先是合着曲調翩翩起舞，而後如銀瓶炸裂般速度驟然加快，這種舞蹈動作表現出消除鬱憤、昇華為喜歡的人類情感。.....歌妓們合着巫曲之一的解恨曲，揮舞着手巾起舞，充分展示出女性的風姿，解恨舞這一名稱也正是由曲調的名字而來。(430)

(4a)의 ‘살풀이춤’은 한자어 【煞】와 고유어(풀이춤)가 결합된 문화소이다. ‘祛煞舞’, ‘驅邪舞’, ‘解恨舞’ 등으로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대략 살(煞)을 떨어 없애거나, 한을 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같은 문화소에 대한 번역인지 일률적인 이해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4b)에서는 ‘解恨舞’로 풀어서 번역하였다. ‘살풀이춤’에 대한 표제어 설명에서 “기녀들은 굿 장단의 하나인 살풀이 장단에 맞추어 손에 수건을 들고 가장 여성적인 모습으로 춤을 추었으며”라고 했으니, 번역자 역시 妓房舞踊¹⁹⁾의 하나로 간주하여 ‘解恨舞’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② 도착어 문화 대체어 사용하기

문화대체어를 사용하는 번역전략은 동일한 상황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는

19) 살풀이춤은 중요무형문화재 97호로, 처음에는 무당들이 살풀이 가락에 맞추어 신을 접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었으나, 뒷날 이들이 관기가 되거나 사당패로 신분을 달리하였고, 다시 사당패가 기녀로 탈바꿈하는 동안 변화되면서 점차 멋을 부려 아름다움을 보이는 기법으로 변천하여 妓房舞踊으로 계승된 것이라는 설이 있다 (위키백과).

비네(Vinay)와 다벨넷(Darbelnet)²⁰⁾의 등가를 확대, 적용한 번역 방법이다. 이 전략은 출발어의 문화 특수성을 지닌 요소가 도착어 문화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도착어의 문화대체어를 사용하는 것인데,²¹⁾ 가장 큰 장점은 독자로 하여금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 용이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순수 고유어가 여기에 해당하고 순수 한자어,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된 경우도 일부 있다. 순수 한자어라도 중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한자일 경우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대체하여 번역해준다. 이 책의 번역 사례로 볼 때 <국밥>, <비빔밥>, <반찬>, <김치>, <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젓갈>, <장아찌>, <불고기>, <묵>, <전>, <송냥>, <누룽지>, <막걸리>, <저고리>, <고름>, <동정>, <버선>, <마고자>, <나막신>, <뚝배기>, <양반>, <관소리>, <아니리>, <팽과리>, <탈>, <매듭>, <태극기>, <애국가>, <두루마기>, <사물놀이>, <수정과>, <식혜>, <거문고>, <터주>, <탈춤>, <빈대떡>, <해장국> 등의 번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번역예시5)

- a. 두루마기는 한복에서 가장 바깥에 입는 겹옷이다. 대체로 저고리와 비슷하다. 길이는 훨씬 길어서 무릎 정도까지 오는 동정과 깃, 소매의 폭이 저고리에 비해서 넓은 편이다. 원래 한국인들은 저고리 위에 입는 겹옷을 통틀어 袍라고 하여 매우 다양한 옷을 입었다.
- b. 朝鮮長袍在韓服中穿在最外面的外衣。大體上與褂相似，但長度更長，直達膝蓋，領邊與領子、以及袖子的寬度比褂寬。..... 原來韓國人將褂上穿的罩衣統稱為袍，其種類非常多。(133)

(5a)의 고유어 ‘두루마기’는 저고리 위에 입는 겹옷이다. 겹옷을 袍라고 한다는 점에서 중국어의 ‘長袍(중국 고유의 옷)’로 대체할 수 있다. (5b)와 같이 앞에 朝鮮을 덧붙이거나, 혹은 韓國을 덧붙여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도착어 문화권 독자들의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만약 대응 단어가 없을 경우 그 보다 한 단계 높은 분류의 상위어로 대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지시적 의미가 다소 달라지며 문화적 색채를 보존할 수 없다는 단점이

20) 김도훈 (2006a: 15 재인용).

21) 김효중 (2004: 40).

있어 번역자의 권한의 정도와 번역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²²⁾ 실제 이 책에 실린 용례 중 상위어로 대체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번역예시6)

a. 판소리는 북장단에 맞추어 긴 이야기를 노래와 말로 엮어 구연하는 민속 음악이다.두 명이 한다. 한명은 고수라 하여 북을 치며 장단을 맞추고 나머지 한 명은 광대라 하여 짚 부채를 들고 긴 이야기를 구연한다. 이때 광대는 노래와 말을 섞어 하는데 광대가 부르는 노래를 창이라고 하며 말로 하는 대사를 아니리라고 한다.

b. 韓國傳統淸唱是一種說唱的民俗音樂，和着鼓的節奏用歌曲和語言歌唱或講述長篇故事，并做出身體動作。.....由兩人進行。一人稱為鼓手，負責擊鼓配合節奏，另外一人稱為藝人，拿着折扇說唱長篇故事。這時，藝人混合使用歌曲和語言，藝人所唱的歌曲稱為唱，所說的臺詞稱謂道白。(366)

(6a)의 고유어 ‘판소리’에 대한 중국어 번역 표기는 ‘盤索里’, ‘板索里’, ‘盤騷里’, ‘盤騷俚’, ‘淸唱’, ‘說唱’, ‘韓國傳統淸唱’, ‘唱劇調’ 등 무려 8개나 된다.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에는 ‘板索里’로 음역되어 있지만, (6b)에서는 ‘韓國傳統淸唱’으로 번역했다. 다만, 중국의 ‘淸唱’의 경우 반주 없이 노래하는 것으로, 사람 수는 1인이든 다수이든 제한이 없다. 그래도 중국의 ‘淸唱’에 익숙한 독자들은 ‘판소리’의 문화대체어로 간주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문화 대체어 번역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번역예시7)

a. 사물놀이란 네 사람이 팽과리, 징, 장구, 북 등 타악기들을 한데 어울려 치며 노는 놀이이다.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네 악기로 연주하도록 편성한 음악 또는 이러한 악기로 편성된 합주단을 가리킨다.

b. 所謂鑼鼓合奏，是指四個人配合敲擊小鑼，鑼，杖鼓，鼓等打擊樂器進行的遊戲。但如果更嚴密地說，則是指供這四種樂器演奏而譜寫的音樂或由這些樂器構成的合奏團。(370)

22)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31. (김도훈 2006: 16).

(7a)의 ‘사물놀이’는 한자어 【四物】와 고유어(놀이)가 결합된 문화소이다. 팽과리, 징, 장구, 북 네 가지 타악기가 한데 어울려 치며 노는 놀이인데, 한자어는 고정시키고 고유어(놀이)의 번역만을 병기하여 ‘四物+遊藝(遊戲)’ ‘四物+遊藝(遊戲)表演’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것은 타지화 전략의 하나인 한자어와 고유어 번역을 병기한 것이다. 또 『韓漢大辭典』²³⁾에는 ‘(鼓, 長鼓, 大鑼, 小鑼演奏의)四器農樂’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번역만으로는 ‘四物/四器’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알 수 없고, 표제어의 설명에서도 “엄밀히 말해 네 악기로 연주하도록 편성한 음악이나 합주단을 가리킨다”고 풀이를 하고 있으므로 (7b)처럼 ‘鑼鼓+合奏(징과 북 등의 타악기 합주)’라고 중국인 독자들에게 익숙한 문화대체어로 번역을 할 수도 있다.

3.2.2 타지화의 방법

① 출발어의 음을 그대로 차용하기

의미를 살릴 수 없을 경우 비슷한 중국어로 음역해준다. 순수 고유어가 여기에 해당한다. 짙은 문화적 색채를 띤 고유어를 번역하는 경우 출발어의 음을 그대로 옮겨 생동감과 이국적 정서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중국어 음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책의 번역 사례로 볼 때 <강강술래>, <아리랑>의 번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교적 중국어권에 잘 알려진 <강강술래>, <아리랑>에 비하여, 중국어 음역만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주석을 달거나 설명 어구를 첨가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번역자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번역에서8)

- a. 강강술래는 주로 추석날 밤에 여인들이 손을 잡고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집단으로 추는 춤이다. 손에 손을 맞잡고 20~30대의 여인들은 노랫소리에 맞추어 때로는 걷고 때로는 뛰면서 커다란 원을 만들며 춤을 춘다.
- b. 強強須來主要是仲秋節晚上女人們手拉手圍成一個大圓圈集體跳的舞。20~30歲左右的女人們水拉水, 伴着歌聲或走或舞, 圍成一個大圓圈。(428)

23) 劉沛霖 (2007).

(8a)의 고유어 ‘강강술래’는 설명식으로 풀어쓰면 ‘등그렇게 원을 그리며 집단으로 추는 춤’이다. 도착어 문화에 익숙한 표현으로 풀어서 ‘圓圈舞’, ‘圓圈舞曲’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韓漢大辭典』에도 ‘韓國民俗女子圓舞, 或跳此舞時唱的歌’으로 설명식으로 번역되어 있다.²⁴⁾ (8b)에서는 ‘強強須來(舞)’로 음역을 했는데, 이 외에도 ‘強羌水越來’, ‘羌羌水越來’(문화재청 홈페이지 번역) 등의 음역어가 있다. 음역의 경우 어떤 한자를 쓰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음역 표기의 통일 기준이 필요하다.

② 한자어로 직역하기

순수 한자어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한자만으로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다. 한자어를 중국어 간체자로 변환해주면 된다. 한자를 직역했을 경우 도착어에는 원래 없는 명칭이어서 비록 독자들이 뜻을 유추할 수는 있지만 결코 매끄러운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용어의 설명을 부가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이 책의 번역 사례로 볼 때 <가야금(伽倻琴)>, <냉면(冷面)>, <청주(淸酒)>, <소주(燒酒)>, <시조(時調)>, <국악(國樂)>, <농악(農樂)>, <단소(短簫)>, <태평소(太平簫)>, <한복(韓服)>, <향교(鄕校)>, <북소리(福箏籬)>, <단군(檀君)>, <향가(鄕歌)>, <가사(歌辭)>, <한지(韓紙)>, <나전칠기(螺鈿漆器)>, <승무(僧舞)>, <태권도(跆拳道)>, <삼계탕(蔘鷄湯)>, <창(唱)>, <대금(大琴)>, <단소(短簫)>, <태평소(太平簫)>, <태권도(跆拳道)>, <화문석(花紋席)> 등의 번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번역예시9)

- a. 가야금은 가야국에서 만들어진 현악기라는 뜻인데,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가야의 한 왕이 6세기 무렵에 중국의 악기를 보고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 b. 伽倻琴意爲由伽倻國制作的弦樂器, 但究竟何時制造却無從考證。據說是伽倻的一個國王在6世紀左右時看到中國的樂器後制作而成。(372)

(9a)의 한자어 ‘가야금’은 가야국에서 만들어진 현악기인데, 중국에서 기원

24) 劉沛霖 (2007).

했다는 설이 있다. 중국의 전통 악기로 한국의 가야금처럼 생긴 古箏이 있다. (9b)처럼 ‘伽倻琴’으로 번역할 경우 완전히 동일한 악기는 아니지만, 중국인 독자들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③ 한자어와 고유어의 번역을 병기하기

한국어에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문화소가 있다. 이 경우 한자어 직역에 고유어의 번역을 병기하는 방법이 있다. 이 책의 번역 사례로 볼 때 <오곡밥>, <매운탕>, <백김치>, <백설기>, <송편>, <장독대>, <청사초롱>, <한글>, <차전놀이>, <삼신할머니>, <서낭당>, <하회탈>, <진돗개>, <금줄>, <책거리> 등의 번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번역예시10)

a. 금줄은 부정한 것의 침범을 막기 위하여 신성한 영역에 쳐놓는 새끼줄이다. 금줄로 이용할 새끼줄은 왼쪽으로 꼬아서 만드는데 그 이유는 금줄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새끼줄에는 경우에 따라 숯이나 흰 종이, 고추, 생솔가지 따위를 끼워 넣기도 한다..... 금줄을 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아이를 낳았을 때이다. 금줄은 장을 새로 담았을 때에도 사용한다. 한국 음식에서 장은 가장 기본이 되는 양념이므로 장맛이 그 집안의 음식의 맛을 결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장이 잘못되지 않고 좋은 맛을 유지하도록 독의 윗부분에 금줄을 치는데 이때에는 새끼줄에 숯이나 흰 종이를 끼워 넣는다.

b. 禁線是爲防止不吉祥的東西侵入而在神聖的區域拉起來的草繩。將被用作禁線的草繩一定要從左側搓起，其理由是禁線不是俗世的，而是神聖的物品，根據情況的不同，也有在草繩上夾入炭，白紙，辣椒，新鮮的松枝等物品的。.....拉禁線最普通的情況是生孩子的時候。.....禁線也在做新醬時使用。醬是韓國飲食中最基本的調料，因此醬的味道決定着家中飯菜的味道。所以，要在醬缸的上部分拉上禁線，以使醬保持好味道，此時要在草繩上夾入炭和白紙。(224-225)

(10a)의 ‘금줄’은 한자어 【禁】와 고유어(줄)가 결합된 문화소이다. ‘금지하다’는 뜻의 한자어는 고정시키고 여기에 고유어를 번역하여 병기한 것이다. 중국인 독자들은 ‘금+줄’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기에, 부가 설명을 읽어야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이 문화소에 생소한 중국인들은 (10b)에서

처럼 ‘禁線’으로 번역하거나, 금줄로 이용된 새끼줄의 의미를 살린 ‘禁繩’ 혹은 ‘攔繩(줄로 차단하다)’, ‘禁止通行的繩(통행을 금지하는 줄)’, ‘辟邪繩(부정한 것을 물리치는 줄)’ 등으로 의미를 풀어서 번역한 경우도 있다.

번역예시11)

a. 진돗개는 한국의 서남쪽에 있는 섬인 진도 일대에서 특별히 길러오고 있는 한국 개의 이름이다. 진돗개는 키가 수컷이 55~60cm, 암컷이 45~50cm 정도로 거대하지도 않지만 작지도 않다. 외모는 온순해 보이면 서도 매우 수려하며 털은 대체로 황갈색인데 강하고 윤이 난다. 진돗개가 우수한 개로 사랑받는 이유는 외모뿐만 아니라 훌륭한 성격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주인에게 충직하며 영리하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되돌아 오려는 속성이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

b. 珍島狗是一種韓國狗的名稱，這種狗主產于韓國西南島嶼---珍島一帶。珍島狗體型適中，雄狗體長55~60cm，雌狗體長45~50cm左右。珍島狗外貌溫順，非常可愛，皮毛大體為黃褐色或白色，硬而有光澤。.....優秀的珍島狗受到喜愛的理由并非僅僅是由于外貌而已，還在于其卓越的性格。珍島狗聰明伶俐，對主人無比忠誠，要返回故居的秉性強到令人吃驚的地步。(468)

(11a)의 진돗개는 한자어 【珍島】와 고유어(개)가 결합된 문화소이다. ‘珍島犬’, ‘珍島狗’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11b)에서는 ‘珍島狗’로 번역을 했는데, 물론 중국에도 많이 알려진 한국의 특산물인데, 이런 고유명사의 경우 문장 속에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의 진도라는 지역에서 생산된 개’라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스톨제(R. Stolze)의 실제적 부등성 이론과 Venuti(베누티)의 현지화와 타지화 번역 전략을 적용하여 한중 번역에 있어서의 문화소의 다양한 번역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리문화 길라잡이』와 그 중국어 번역본의 문화 표제어를 비교함으로써 이들 텍스트의 번역에 나타난 전략을 확인하였

다. 연구 결과 주목할 만한 번역 전략으로 크게 다섯 가지 전략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출발어 유형		번역 전략	
1	고유어, 한자어 한자어+고유어	도착어 문화표현으로 풀어쓰기	현지화
	고유어, 한자어 한자어+고유어	도착어 문화대체어 사용	
3	고유어	출발어의 음을 그대로 차용	타지화
4	한자어	한자어로 직역	
5	한자어+고유어	한자어와 고유어의 번역 병기	

본고에서 필자는 위의 번역 전략들을 통해 문화소의 부등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출발어 문화소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번역 전략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 분석용으로 발췌한 107가지의 문화소 중에 전략과 용례 수를 살펴보면, 도착어 문화표현으로 풀어쓰기(25), 도착어 문화대체어 사용(39), 출발어의 음을 그대로 차용하기(2), 한자어로 직역하기(26), 한자어와 고유어의 번역 병기(15)로 나타났다. 번역전략을 보면 현지화 번역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고, 현지화 번역 전략 중에 상위어의 번역은 지시어의 의미가 다소 달라질 가능성과 출발어의 문화적 색채를 보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사용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지화 전략 중에는 한자어로 직역을 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어에는 한자에서 온 어휘들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주된다. 그러나 중국어로의 음역은 정확한 표기의 통일 기준이 없어 오히려 독자들의 이해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 사용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위의 다섯 가지 전략들이 기능 및 효과 면에서 고유한 장단점이 있으며 중복 사용할 수도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번역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번역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만, 사례분석을 위해 선정된 텍스트가 매우 한정된 관계로 분석의 두드러진 특징이 번역자 개인의 언어 습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어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번역이 이루어진 각 문화소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그 경계가 불분명하고 때로는 중복되기 때문에 경계에 대한 명

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 점은 추후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텍스트 외에 다른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에서 문화 관련 어휘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되리라 생각한다. 번역 교육에 있어서도 문화 관련 어휘 번역 방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계속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좋은 교육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역에 있어서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데에도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수정 (2010) 「중한번역에서 문화소의 부등성에 따른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11(4): 7-23.
- 권인경 (2013) 「문화소 번역 방법 연구 - 제주 관광안내텍스트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25: 37-59.
- 김도훈 (2006a) 「문화소 번역에서의 인지적 축적물의 역할 및 번역 전략」,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8(2): 3-29.
- 김도훈 (2006b) 「문화소의 부등성 보상을 위한 번역전략- 부산 관광지 안내 표지판 및 책자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7(2): 31-51.
- 김효중 (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서울: 푸른사상.
- 이근희 (2005) 『이근희의 번역산책 -번역투에서 번역전략까지』, 서울: 한국문화사.
- 전기정 (2008) 「문학번역에서의 문화소와 번역전략」, 『중국어문학논집』 51: 275-99.
- 증천부 (2008) 「문화차이와 한국문학작품 번역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Journal of Korean Culture』 10: 304-27.
- 沈儀琳 (2006) 『韓文漢譯實用技巧』, 北京: 中國社會科學文獻出版社.
- 王大來 (2004) 「從翻譯的文化功能看翻譯中文化缺省補償的原則」, 『外語研究』 6: 68-77.
- 劉沛霖 (2007) 『韓漢大辭典』, 北京: 商務印書館.

- Aixela, Javier Franco (1996) 'culture-specific Items in Translation' In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Roman Alvarez and Maria del Carmen-Africa Vidal(ed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52-78.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Nam, Won Jun (2008) 'How Students Translate Culture-specific Items: An Analysis of Student Translations &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9(3): 151-75.
- Venuti, Lawrence (1995) *The Invisibility of the translator: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분석텍스트>

- 국립국어연구원 (2002) 『우리문화 길라잡이』, 서울: 학고재.
- 조경희, 손지봉 옮김 (2004) 『韓國文化嚮導』, 서울: 학고재.

[Abstract]

Korean-Chinese Translation Strategies to Handle Cultural Elements

Keum, jia
(Peking University)

Cultural elements refer to all the social-cultural aspects by which a situation and following actions are understood. When a cultural element in the source language is not present in the target language, it is very hard to translate all the important ideas. However, if the cultural elements are used as a complementary strategy, the cultural elements will be able to compensate the asymmetry of cultures, which is the focus of this paper. This paper reviews the asymmetrical nature of cultural elements and various strategies of Korean-Chinese translation. It identifies five noteworthy strategies: First, in case of domestication translation, either rewrite the source expression into a more familiar expressions in the target language or use a culturally alternative expression. Second, phonetic transliteration of the source language, using the original Chinese characters, and using literal translation Korean commentary are the strategies suggested for foreignization translation.

▶ Key Words: Korean-Chinese translation, strategy, asymmetrical nature of cultural elements, domestication translation, foreignization translation

금지아

북경대학 한국어학부 부교수

kja2451@hanmail.net

관심 분야: 번역학, 번역학사, 통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5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15년 9월 2일

게재확정일: 2015년 9월 24일